



대학생의 웰다잉에 관한 인식과 태도*

- Q 방법론적 접근 -

심 형 화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31.0명으로 전년대비 19.3%가 증가하였으며, OECD 평균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11.2명의 세배에 가깝다(Statistics Korea, 2010). 더욱이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성이 크며, 2011년 상반기에는 카이스트 대학생 네 명이 자살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Lee & Choi, 2011).

일반적으로 ‘자살’은 사고사나 살인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많은 죽음 중의 하나로 간주되며, 죽음이 ‘피해야 하는 것’, ‘두려운 것’, ‘불안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가지는 아이러니는 오히려 죽음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자살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Bark, 2007). 우리나라의 청년자살의 증가는 외환 위기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혼란 속에서 구성원들이 정체성과 방향성에서 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구속성이 낮아졌지만 가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역설

적 상황에서 학업이나 취업에 대한 압력으로 자살을 탈출구로 선택한다고 보고 있다(Pan, 2007).

이렇듯 현대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애완동물의 죽음을 통해 겪게 되는 직접적인 경험은 물론 텔레비전, 영화, 게임, 만화,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겪게 되는 간접적인 경험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영상 매체나 각종 게임을 통한 간접적이고 비인간화된 죽음은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내면화하는 기회를 주기보다 생명경시 현상이나 폭력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Kim, 2010). 따라서, 충동성이 강한 그들에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고 삶을 바르고 성실하게 이끌어주는 죽음준비교육은 다른 어느 세대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학교교육에서 죽음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며,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죽음교육을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Becker, 2004).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외국에 비해 죽음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일부 대학이나 종교 단체 등에서 부분적으로 죽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Kang, 2010; Weekly Newsmagazine, 2009), 그것도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Oh & Kim, 2009; Park, 2009).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도 죽음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웰다잉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양해지고 있다. 웰다잉은 어의상 ‘잘 죽는다’는 의미인데, 서양에서는 ‘dying well’로 표

주요어 : 대학생, 인식, 태도

* 본 연구는 2011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hwshim@cup.ac.kr)

접수일: 2012년 3월 9일 1차 수정일: 2012년 5월 1일 게재확정일: 2012년 5월 7일

현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기존의 '좋은 죽음(good death)'이나 '존엄사(dying with dignity)' 등으로 개념화되어 있다(Yoo, 2008).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외국의 경우, 임종기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Debate of the Age Health and Care Study Group (1999)이 '열두가지의 좋은 죽음의 원리'를 제안하였고, 'Good Death'의 구성요소를 '통증과 증상조절, 분명한 의사결정, 죽음준비, 성취, 타인에 대한 기여, 전체성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긍정' 등의 6가지 속성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Steinhauser et al., 2000).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죽음의 요소'로 '통증없이 죽는 것, 임종기 동안의 자율성, 집에서 사망하는 것, 노환으로 사망하는 것' 등을 높게 지지하였으며(Kim, Lee, & Kim, 2003),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적절한 수명, 고통이나 질병이 없는 죽음 등 본인과 관련된 조건 뿐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의 행복과 경제적인 부, 정신적인 면을 함께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Yoon, Park, Cheong, & Yoo, 2002).

한편, 죽음과 관련한 태도에 있어서 대학생들은 죽음을 '삶의 마지막 과정'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죽음에 대한 정서반응은 무서움과 두려움 등의 불쾌한 느낌을, 죽음을 직면한 상황일 때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Lee & Yang, 2007). 또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죽음에 대한 회피경향이 높은 반면에, 여학생들은 죽음 수용 정도가 남학생들 보다 높으며, 이러한 청년집단의 죽음공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신경증 성향과 심리적 적응, 자아 존중감, 죽음 대처 효능감, 노화나 노인에 대한 태도 등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Min, 2005). 한편 죽음을 수용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양가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간호학 전공자와 비전공자 사이에 죽음에 대한 견해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Kim & Kim, 2003).

이렇듯,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존엄사 혹은 연명치료 중단이나 자살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들은 다시금 생명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고 있는데, 이는 생명이란 죽음의 파트너이며 죽음을 분리시켜 생명을 말하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웰다잉(well-dying) 교육 즉, 죽음준비교육은 생명윤리의 이슈들에 대한 균형잡힌 바른 이해를 전제로 '대안' 혹은 '해법'의 추구가 되어야 마땅하며, 그 바탕위에서 생명의 존엄을 구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Moon, 2009).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 평소에는 자신들과 상관 없는 노인들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자살 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세대이기도 한 대학생들(Ha & An, 2008)이 생각하는 웰다잉에 대한 주관성을 밝혀봄으로써,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자신들이 처한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총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죽음교육'을 통한 진정한 삶의 방식을 터득하도록 돕는데 긴요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 사회의 개인중심적인 수평구조를 갖는 '좋은 죽음'에 비해 현재 지향적이면서 가족중심적인 경향이 강하고, 조상숭배의 관념이 뿌리가 깊은 우리의 그것은 사뭇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어서, 죽음을 자연현상으로 이해하고 결코 삶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으며 내세관 또한 서양의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태도와 달리 관념적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본다(Kim, 1994). 한편, 죽음에 관한 개인의 고유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계량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논리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문화적 산물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의 주관성에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웰다잉' 개념에 대한 대학생들의 주관성의 구조를 밝혀냄으로서 그들의 관점에 따른 보다 깊이 있는 간호를 강조하며, 나아가 죽음교육을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초자료의 일익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웰다잉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유형화한다.
- 대학생의 웰다잉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유형별 특성에 따라 분석하고 기술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웰다잉'이란 개념에 대한 대학생들의 독특한 주관성을 밝히고자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Q표본의 모집단은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의 총체로 표현되며(Brown, 1980) 이는 다양한 문헌연구와 면접에 의해 얻어질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Q진술(Q-statement)을 사용하였고, 이 진술문은 웰다잉에 대한 집합(Concourse)제공자들의 자아 참조적(self-referent)의견 항목과 문헌고찰, 그리고 개방형 질문을 통한 서면조사를 추가하여 추출되었다.

표본의 추출 방법

● Q 표본(Q-sample)

본 연구의 Q-population은 심층면접과 문헌고찰, 보도자료와 통계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추출하였다. 첫째, P시에 거주하는 남 녀 각 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심층면담을 통하여 웰다잉 개념에 대한 중립적인 심층면접을 시행하였으며, 질문내용은 '웰다잉(잘 죽는다)은 어떤 의미인가?',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등 이었다. 둘째, 좋은 죽음, dying well, 존엄사 등에 관한 관련서적 및 죽음관련 연구들과 최근의 죽음관련 통계청 자료 및 신문과 인터넷 보도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합하여 총 205개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이 자료들을 6차례에 걸쳐 웰다잉의 전제, 의미, 요소(조건과 방식)등 3측면으로 주제를 정하고 범주화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간호학 교수 2인과 Q방법론 전공교수 등과 의견 교환 후 재조정하고, 타전공의 일반 대상자를 고려하여 보다 쉬운 어휘로 바꾸고 어드나 어미를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34개의 Q 표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Q 표본은 웰다잉의 개념과 의미, 웰다잉을 위한 전제, 웰다잉을 위한 조건과 방식 등의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 P 표본(P-sample)

P표본의 선정은 연구된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고 기대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Q 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내의 의미성이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이므로 (Kim, 2007),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P 표본을 구성하였다. 우선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배분한 다음, 죽음을 직접 다루는 장례복지과와 의학과 한의학과 및 간호학과 등의 의료 관련학과와 그 밖의 인문계열, 상공계열과 예체능계열을 망라한 34개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인 대학생인 대상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2명이었다. 한편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전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관심 배경 및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Q 표본 분류(Q-sorting) 및 자료 분석 방법

Q 표본의 분포로는 연구 대상자들이 Q 표본으로 선정된 34개의 진술문들을 자신의 의견에 따른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 상에 분류하여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 분포시키는 Q 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분류하게 하였다. 그 후 양극단에 분류된 진술문과 관련해 대상자와 추후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PQMethod PC Program을 이용하였고, 요인분석은 P표본을 축으로 하는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웰다잉에 대한 대상자의 유형

P표본을 축으로 한 요인분석의 결과 4개 요인으로 분석되

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의 웰다잉에 관한 인식과 태도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었다. 요인별 설명력은 요인 I 이 19%, 요인II 10%, 요인III 19%, 요인 IV가 7%로 전체요인의 설명력은 55%로 나타났다(Table 1).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모든 유형이 각기 고유한 유형임이 밝혀졌다(Table 2).

Table 1. Eigen Value, Variance, and Number of Loading

| Type | Eigen value | Variance (%) | No. of loadings |
|----------|-------------|--------------|-----------------|
| Type I | 13.9354 | 19 | 11 |
| Type II | 3.7429 | 10 | 7 |
| Type III | 2.9794 | 19 | 13 |
| Type IV | 2.6110 | 7 | 3 |
| Total | 23.2687 | 55 | 34 |

Type 1= Oriental and family-centered type; Type 2= Individual and fate-adapted type;
Type 3= Altruistic and afterlife-centered type; Type 4= Self-leading and secularistic type.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ypes

| | Type I | Type II | Type III | Type IV |
|----------|--------|---------|----------|---------|
| Type I | 1.000 | .303 | .474 | .408 |
| Type II | .303 | 1.000 | .315 | .179 |
| Type III | .474 | .315 | 1.000 | .358 |
| Type IV | .408 | .179 | .358 | 1.000 |

Type 1= Oriental and family-centered type; Type 2= Individual and fate-adapted type;
Type 3= Altruistic and afterlife-centered type; Type 4= Self-leading and secularistic type.

연구 대상 P표본 42명은 유형 I 에 11명, 유형II에서 7명, 유형III에서 13명, 유형IV에서 3명이 분포하였으며, 나머지 8명은 어떤 유형에도 분류되지 않았다(Table 3).

웰다잉에 대한 대상자의 유형별 분석

연구결과 산출된 Q요인은 특정 주제에 관하여 유사하게 판단 또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들로서, 선택된 각 유형은 먼저 표준점수(Z-score)가 ±1.00 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고, 각기 요인들 간의 차이가 큰 문항과 해당 요인을 특징짓는 문항들을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 유형 내에서 상관관계 계수가 가장 높아 그 유형의 전형(Table 3)인 대상자가 Q-sorting 당시 개별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합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분석하였다.

● 유형 I : 동양적, 가족중시형

유형 I 은 동양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웰다잉의 개념으로 남아있는 가족이나 자손을 중시하는 대상자의 집단이다.

11명의 대상자가 유형 I 에 속하며 남자 7명 여자 4명이었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6명 불교 4명 등이었으며,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웰다잉에 관한 교육은 모두 받은 적이 없었다 (Table 3). 유형 I 은 웰다잉에 대하여 ‘육체적인 고통없이’,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하여 죽는 것’을 바라면서,

특징적으로 ‘고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는 사람이 많은 죽음’을 중시하고 ‘가족이나 자손에게 짐이 되지 않게 죽는 것’과 ‘자식이 잘되는 모습을 보고 죽는 것’에 가치를 두는 전형적인 가족중심적인 동양적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죽음후의 영생과 부활을 믿는 것’이나 ‘ 잘 죽는

Table 3. Factor Loadings of Respondents

| Q SORT | 1 | 2 | 3 | 4 | Gen-der | Year | Religion | Major | Native place | Satisfac-tion with life | Health status | Pre-education |
|---------------|---------|---------|---------|---------|---------|---------|------------|-------|--------------|-------------------------|---------------|---------------|
| 1 u 1 | -0.0854 | 0.2364 | 0.8253X | 0.1018 | F | 3 | Protestant | s | bc | mod | good | No |
| 2 u 2 | 0.0008 | 0.1567 | 0.8709X | -0.1111 | M | 4 | Protestant | e | bc | good | good | No |
| 3 u 3 | 0.4102 | 0.0811 | 0.6291X | 0.4570 | F | 4 | Catholic | a | bc | mod | fair | No |
| 4 u 4 | 0.4964X | 0.1854 | 0.1986 | 0.1953 | M | 4 | None | a | bc | bad | fair | No |
| 5 u 5 | 0.1118 | 0.5923X | 0.2688 | -0.2669 | F | 4 | None | s | bc | mod | fair | Heard |
| 6 u 6 | 0.3176 | 0.4230 | 0.3597 | 0.2629 | M | 3 | None | a | bc | bad | good | No |
| 7 r 1 | 0.3928 | 0.4135X | 0.0930 | -0.0721 | M | missing | None | e | r | mod | good | No |
| 8 r 2 | 0.4792 | 0.3092 | 0.3209 | 0.1768 | F | missing | None | s | r | good | good | No |
| 9 r 3 | 0.7668X | -0.0033 | 0.3153 | 0.0624 | M | 1 | None | s | r | mod | fair | Hard |
| 10 r 4 | 0.2332 | -0.0442 | 0.1057 | 0.0471 | M | 1 | Protestant | e | r | mod | good | No |
| 11 u 7 | 0.1987 | 0.6366X | 0.2494 | 0.3127 | M | 3 | Catholic | m | bc | mod | fair | Heard |
| 12 u 8 | 0.2851 | 0.0042 | 0.7999X | 0.1955 | F | 4 | Catholic | m | bc | good | good | Heard |
| 13 m 1 | -0.0844 | 0.8480X | 0.0256 | 0.1200 | F | 4 | Catholic | m | sc | mod | good | Heard |
| 14 m 2 | 0.2542 | 0.0180 | 0.7869X | 0.0182 | F | 2 | None | m | sc | mod | fair | No |
| 15 u 9 | 0.0155 | 0.1681 | 0.6916X | 0.0364 | M | 2 | Catholic | m | bc | mod | good | Heard |
| 16 m 3 | 0.5225X | 0.1502 | 0.4455 | -0.1247 | M | 4 | Buddhist | m | sc | good | good | Heard |
| 17 u 10 | 0.4592 | 0.4802 | 0.3489 | 0.2681 | M | 2 | None | m | bc | good | good | No |
| 18 u 11 | 0.4419 | 0.5672X | 0.0745 | -0.0167 | M | 2 | None | s | bc | good | good | No |
| 19 m 4 | 0.5846X | 0.3970 | -0.0937 | 0.3993 | F | 2 | None | s | sc | mod | good | No |
| 20 m 5 | 0.2915 | 0.0539 | 0.3238 | 0.7135X | M | 2 | Buddhist | s | sc | good | fair | No |
| 21 u 12 | 0.3784 | 0.1225 | 0.5832X | -0.0208 | M | 2 | Catholic | s | bc | mod | good | No |
| 22 m 6 | 0.1320 | 0.4080 | 0.4974X | 0.1099 | F | 2 | None | s | sc | mod | fair | No |
| 23 u 13 | 0.1751 | 0.0584 | 0.4136 | -0.4476 | F | 3 | Protestant | s | bc | bad | poor | No |
| 24 u 14 | -0.0559 | 0.0931 | -0.1199 | 0.3748X | F | 4 | None | s | bc | mod | fair | No |
| 25 m 7 | 0.6469X | 0.2408 | -0.0378 | 0.3583 | M | 2 | None | s | sc | mod | good | No |
| 26 m 8 | -0.0835 | 0.5436X | 0.3757 | -0.0844 | F | 4 | None | s | sc | mod | good | No |
| 27 m 9 | 0.1587 | 0.4553X | -0.1188 | 0.0608 | M | 2 | Protestant | s | sc | mod | fair | Yes |
| 28 u 15 | 0.5687X | 0.1520 | 0.2169 | -0.3311 | M | 2 | Catholic | o | bc | mod | good | No |
| 29 u 16 | 0.4590 | 0.1926 | 0.6215X | -0.0544 | M | 1 | Catholic | e | bc | mod | good | Heard |
| 30 u 17 | 0.5078 | -0.0390 | 0.6950X | 0.1551 | M | missing | Catholic | e | bc | good | good | No |
| 31 u 18 | 0.2214 | 0.0501 | 0.5893X | -0.2160 | M | 2 | None | e | bc | bad | poor | No |
| 32 u 19 | 0.7810X | 0.1394 | -0.0204 | 0.1980 | F | 4 | None | e | bc | mod | fair | No |
| 33 u 20 | 0.6335X | 0.1565 | 0.2016 | 0.0504 | F | 3 | Buddhist | e | bc | mod | good | No |
| 34 u 21 | 0.4941 | 0.2273 | 0.5995X | 0.0199 | F | 2 | Catholic | e | bc | mod | fair | No |
| 35 m 10 | 0.7088X | -0.4046 | 0.0760 | -0.1546 | M | 3 | Buddhist | a | sc | mod | fair | No |
| 36 m 11 | 0.7182X | 0.2207 | 0.2582 | -0.0906 | F | 1 | None | a | sc | mod | good | No |
| 37 u 22 | 0.5020X | 0.2224 | 0.2012 | 0.0774 | M | 3 | Buddhist | o | bc | bad | good | No |
| 38 u 23 | 0.5303 | 0.1741 | 0.5326 | -0.2311 | F | 2 | None | s | bc | mod | good | No |
| 39 u 24 | 0.4403 | 0.4635 | 0.2284 | -0.2704 | F | 4 | Protestant | a | bc | mod | good | No |
| 40 u 25 | 0.3548 | -0.1341 | 0.6311X | -0.2748 | M | 1 | None | s | bc | mod | good | No |
| 41 u 26 | 0.4904 | 0.2077 | 0.3317 | -0.3866 | M | 3 | None | s | bc | mod | fair | No |
| 42 r 5 | 0.2972 | -0.0110 | 0.1887 | 0.7640X | F | 4 | None | o | r | mod | good | Yes |
| % expl.Var | 19 | 10 | 19 | 7 | | | | | | | | |

bc= big city; r= rural; sc= small city.

s= socio/humanities; e= engineering; a= art/sports; m= medical/nursing; o= others.

법도 교육이 필요하다' 등에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Table 4). 유형 I 이 다른 유형에 비해 차이가 큰 긍정적인 진술문도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사람이 많은 죽음',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 '자식이 잘되는 모습을 보고 죽는것' 등이며, 부정적인 진술문은 '재산을 남에게 기부하는 것'이나 '죽음 교육' 등에 대한 것이었다. 유형 I 의 전형(32번

Table 4. Statement of Strong Agreement and Disagreement in Type I, II, III, IV

| | Strong agreement | Z-score |
|--|---|---------|
| Type I | 17. Dying comfortably without bodily pain. | 1.89 |
| | 19. Dying, when many mourn and lament the death. | 1.74 |
| | 6. The regretless death. because I have done all the things I want to do during my life. | 1.25 |
| | 11. Not being burden to family and offspring when facing death. | 1.16 |
| | 18. Dying a natural death, when one is fully old. | 1.72 |
| | Strong disagreement | |
| | 12. Ending one's life as a means of escape from the burden of life. | -1.54 |
| | 14. Believing in eternal life and resurrection after death. | -1.71 |
| | 2. Donating one's property to others not offspring. | -1.27 |
| | 25. Decisions on suicide are one's own free will and right. | -1.49 |
| 31. It's necessary to educate people on dying well in addition to well-being. | -1.46 | |
| Type II | Strong agreement | |
| | 10. It is my fate when and how to die. | 1.85 |
| | 29. We must live joyfully without regret. | 1.57 |
| | 6. The regretless death. because I have done all the things I want to do during my life. | 1.54 |
| | 7. Death is a natural aspect of life. | 1.25 |
| | 26. Do not want to face death in the intensive care unit of a hospital. | 1.34 |
| | Strong disagreement | |
| | 12. Ending one's life as a means of escape from the burden of life. | -1.69 |
| | 14. Believing in eternal life and resurrection after death. | -1.86 |
| | 3. Truly, I have never thought about death and well-dying. | -1.38 |
| 33. In case of an unfair death, it's not bad to practice exorcism for the departed. | -1.15 | |
| 34. Wanting to die in a brief instant without any pain as in having a heart attack. | -1.41 | |
| Type III | Strong agreement | |
| | 1. Thinking happily and thankfully at the moment of one's death. | 1.76 |
| | 15. To leave this world after giving the impression and hope to the people who remain. | 1.70 |
| | 6. The regretless death. because I have done all the things I want to do during my life. | 1.49 |
| | 8. Having time to reflect on one's life | 1.21 |
| | 30. We must live and be of service to others on ordinary days. | 1.07 |
| | Strong disagreement | |
| | 25. Decisions on suicide are one's own free will and right. | -1.93 |
| | 27. Dying is the end of all. There is no afterlife. | -1.74 |
| | 10. It is my fate when and how to die. | -1.33 |
| 12. Ending one's life as a means of escape from the burden of life. | -1.65 | |
| 33. In case of an unfair death, it's not bad to practice exorcism for the departed. | -1.52 | |
| Type IV | Strong agreement | |
| | 6. The regretless death. because I have done all the things I want to do during my life. | 1.89 |
| | 17. Dying comfortably without bodily pain. | 1.67 |
| | 16. Buddhist paradise or the Kingdom of heaven is not in that world, but in this world. | 1.66 |
| | 18. Dying a natural death, when one is fully old. | 1.35 |
| | 20. Dying after preparing all the thing related with death (last will and testament, arrangement of property left, the process of funeral ceremonies, etc.) | 1.32 |
| | Strong disagreement | |
| | 10. It is my fate when and how to die. | -2.01 |
| | 12. Ending one's life as a means of escape from the burden of life. | -1.69 |
| | 14. Believing in eternal life and resurrection after death. | -1.20 |
| 25. Decisions on suicide are one's own free will and right. | -1.50 | |
| 28. Family and doctor must be honest in telling the person concerned about dying and the disease | -1.13 | |

Type 1= Oriental and family-centered type; Type 2= Individual and fate-adapted type;
 Type 3= Altruistic and afterlife-centered type; Type 4= Self-leading and secularistic type.

=.78)은 도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조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학전공의 여대생으로, 현재는 두 분 모두 연로하여 편찮으신데 매일 자신이 돌보아 드린다고 하였다. 웰다잉을 ‘병으로 고통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와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알고 싶어 ‘고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는 사람이 많은 죽음’에 가치를 두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기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죽음교육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 유형II: 개인적, 운명수용형

유형II는 동양의 자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죽음을 타고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운명수용적 성향을 지닌 대상자의 집단이다. 7명의 대상자가 유형II에 속하며 남자 4명 여자 3명이었고,

종교는 없음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천주교, 기독교를 합하여 3명으로서 대부분 도시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웰다잉에 관한 교육은 1명이 받은 적이 있고 2명은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유형II는 ‘언제 어떻게 죽느냐는 것은 타고난 운명’ 이고 ‘죽음 또한 생명의 자연스러운 측면’으로서, 따라서 ‘후회없이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병원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고 싶지 않고’, ‘죽음후의 영생과 부활’도 믿지 않는 등 현세지향적인 삶을 중시하는 태도와 더불어 운명수용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가족적 가치인 ‘자손이 지키는 임종이나 애도하는 사람이 많은 죽음’ 등에는 부정적이다. 또한 ‘죽음과 질병에 대해 의사가 솔직히 알려주어야’ 하며 ‘자살을 선택하는 것도 본인의 의지고 권리’라 생각하는 등 개인적 차원의 가치를 존중한다(Table 4). 유형II가 다른 유형에 비해 차이가 큰 긍정적인 진술문 역시 ‘언제 어떻게 죽는 것은 타고난 운명’과 ‘후회없이 즐기면서 살아야’ 등이며, 부정적인 진술문은 ‘애도하는 사람이 많은 죽음’이나 ‘자손이 임종을 지키는 것’ 등이다. 유형II의 전형(13번=.84)은 중소도시 출신의 22세의 간호학도로 최근 가까운 가족과 사별하였고 친구도 자살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다. 웰다잉에 대해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은 본인의 선택이 개입되어야 한다’는데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고, ‘죽음과 질병에 대해 의료진이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죽고 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고, 죽은 뒤의 영생은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 유형III: 이타적, 내세준비형

유형III은 타인지향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서양의 기독교적

내세관에 동조하는 경향을 가진 대상자의 집단이다. 13명의 대상자가 유형III에 속하며 남자 7명 여자 6명이고, 기독교와 천주교 신자가 8명이었으며 모두 도시출신들이고, 웰다잉 교육은 ‘들어본 적 있는 경우’가 3명이었다.

유형III은 ‘죽는 순간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죽는 것’과 ‘남아있는 사람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떠나는 것’에 적극적인 동조를 나타내며 ‘평소에 남을 위해 베풀고 봉사하는 삶’을 중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장기나 각막 등을 기증’하는 것에 찬동하는 등 이타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한편,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며 내세는 없다는 생각’과 ‘죽음을 타고난 운명이라 생각한다’거나, ‘억울한 죽음을 위한 곳’ 등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으로서 동양적인 가치관을 부정하고 내세지향적이며 서양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일치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Table 4).

유형III이 다른 유형에 비해 차이가 큰 긍정적인 진술문은 ‘죽는 순간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죽는 것’과 ‘남아있는 사람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떠나는 것’ 등이며, 부정적인 진술문은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며, 내세는 없다’와 ‘죽음은 타고난 운명’, ‘소생 불가능한 상태라면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 등이었다. 유형III의 전형(2번=.87)은 대도시 출생의 공학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남학생으로서, 대학 1학년 때 기독교에 접하게 되었고 이후 종교를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죽음후의 영생과 부활’을 믿으며 예수의 삶처럼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죽음이 끝이며 내세가 없다’와 ‘억울한 죽음을 위한 곳’ 등에는 적극적인 부정을 나타내고 자살 또한 하나님께 허락한 생에 대해 무책임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 유형IV: 자기주도적, 현세지향형

유형IV는 내세보다는 현실을 중시하고, 자식이나 가족보다 자기중심적인 웰다잉의 개념에 찬동하는 현실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대상자의 집단이다. 3명의 대상자가 유형 IV에 속하며 남자 1명 여자 2명이고 종교는 불교 1명 외 나머지는 없다. 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출신이 각 1명씩이며 웰다잉 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가 1명이고 나머지는 없었다.

유형IV는 ‘육체적인 고통없이’ ‘살면서 해보고 싶은 것 다하고 후회남지 않게’ 죽기를 바라며, 한편으로 ‘극락이나 천국은 저세상이 아니라 이세상’이라 생각하며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하여 죽는 것’에 웰다잉의 비중을 두고 있다. 더불어 ‘죽음에 따른 준비(유언이나 유산정리 등)를 해놓고 죽는 것’을 생각하는 현실주의자이면서, 한편으로 ‘타고난 운명이나 죽음후의 영생과 부활’을 믿지 않는 등 현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Table 4). 유형IV가 다른 유형과 차이가 큰 긍정적인 진술문은 ‘극락이나 천국은 저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죽음에 따른 준비(유언이나 유산정리 등)를 해놓고 죽는 것' '웰다잉 교육' 등이며, 부정적인 진술문으로는 '죽기전 가족이나 친구들과 진심으로 화해하기'와 '죽음은 타고난 운명' 등이었다. 유형Ⅳ의 전형(42번=76)은 시골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장했고, 대학진학 이후 계속하여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21세의 해양경찰학을 전공하는 여대생이다. 종교를 믿지 않고 '사후세계는 없다'고 굳게 믿으며, '자손에게 부담되지 않게 죽음에 대한 준비를 본인이 미리 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고통없이 죽고 싶지만 심장마비처럼 순식간에 죽는 것'은 원치 않으며, 또한 '자살은 본인의 선택이전에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나 행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논 의

현대의 우리사회에서 자살사망률이 급증하고 불행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그 중요한 원인으로 왜곡된 죽음정의와 육체중심의 인간 이해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죽음교육이 진정한 삶의 방식을 터득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삶을 배우고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청소년기와 대학생을 위한 죽음교육은 어느 단계보다 중요한 의미를 띠는다고 할 수 있다(Kim, 2010). 대학생인 본 연구 대상자들이 나타난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유형은 유형Ⅰ: 동양적, 가족중시형, 유형Ⅱ: 개인적, 운명수용형, 유형Ⅲ: 이타적, 내세준비형, 유형Ⅳ: 자기주도적, 현세지향형의 4개로 분류되었다. 대상자들의 웰다잉에 대한 유형화에 기본바탕을 이룬 요소는 대상자들의 내세관이었는데 유형Ⅰ, 유형Ⅲ은 내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형Ⅱ와 유형Ⅳ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 전국단위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신체관, 영혼관, 죽음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중 49.7%가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던 결과(Lee, Kang, Son, Kim, & Lee, 2005)에 비해, 2009년의 전국규모 조사자료인 한국인의 죽음수용과 종교(Yi, 2009)에서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해 '있다' 39.6%, '없다' 42%, '알 수 없다' 18.4%로 응답하여 점차 사후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들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종교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도 내세에 대한 믿음은 약화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같은 현세중심적 사고가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 내세관이 종교인들에게서도 믿음의 근거로 작용하는 비율이 감소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Yoo, 2008).

가장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Ⅰ은 동양적인 세계관과 가족중심적인 내세관을 가진 사람들로서, 천수를 다한

뒤 고통없이 편안하게 죽기를 소망하며 주변사람들의 애도가 중요할 뿐 아니라 가족이나 자손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재산을 자식에게 남겨놓고 죽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 유형을 구성하는 사람은 천주교 1명을 제외하고는 불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로서 동양적인 죽음관인 죽음을 삶의 윤회과정 가운데 한 현상으로 보고, 산 자(生子)속에 죽은 자(死者)가 내재하고, 개인뿐 아니라 조상에게까지 전체적으로 연관 지어 시간적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점(Jang & Kang, 2000)에 있어서 민속적 사머니즘적 성향을 내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이나 노인들의 '좋은죽음'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적절한 수명, 고통이나 질병이 없는 죽음'(Kim et al., 2003)뿐 아니라 '죽음 복(福)'과 '자손을 배려함' 등의 동양적인 의미를 중시한 것(Kim, Kwon, & Lim, 2004)과도 그 맥을 같이하며, 본 연구 대상자들과 비슷한 연배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질적 연구(Jo, 2010)에서도 '자연에 순응하는 죽음, 가족과 함께하는 죽음, 편안한 죽음'과 같이 한국문화와 정서에 익숙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서양의 합리적 교육철학과 과학적 사고를 교육과정 속에 받아들이면서 자란 대학생들이지만 가족을 중시하며, 집단주의 문화에 친숙한 한국적인 문화적 특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웰다잉 교육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유형Ⅱ는 죽음을 타고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운명수용적 성향의 사람들로서, 성별이나 종교 등의 편중이 없이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죽음을 생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혹은 운명으로 생각하고, 현재를 후회없이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배려나 죽음에 따른 준비 등에는 우호적이지 않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러한 자연과의 균형과 조화의 개념은 동양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그 사상적 맥락은 표면적으로는 영향력이 상당히 쇠퇴하였으나 다면적인 현대인들의 속성들 속에서의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그 핵심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Kim, 1994). 특별한 점으로, 다른 유형이 모두 자살을 부정적 관점으로 보는데 반하여 유형Ⅱ는 자살선택도 자신의 의지와 권리에 속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의 자살에 관한 태도를 Q 방법론으로 유형화한 연구(Choi & Seo, 2011)를 보면, 자살반대-도덕적 사고형과 더불어 자살이해-공감형과 양가감정형의 3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현재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짐작하게 한다. 한편,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하정희와 안성희(2008)에 따르면, 다양한 개인의 심리변인 중에서 충동성이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가장 높으며, 스트레스가 충동성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와 매개된 충동성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자살 의도를

결정하는 변인을 검증하고자 시도된 연구(Lee & Choi, 2011)에서는 최종적으로 인지된 행위통제 변인의 설명력이 다른 유의미한 변인들을 합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자살행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신념이 높을수록 자살 의도가 높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주의화된 대학생들이 자살이 자신이 속한 사회 속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대학생들의 자살 예방 캠페인이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웰다잉 교육을 위한 전략수립에 있어 인지된 행위통제 변인의 조절효과를 기르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즉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해서도 자살은 자신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명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유형 III은 동양적인 세계관에 동조하지 않으며, 웰다잉에 대해 죽는 순간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기를 바라며 평소에 봉사하는 삶을 중시하고 장기기증에도 호응하는 등 적극적인 이타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들은 기독교와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고 다른 유형과 달리 웰다잉에 관한 교육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2008년도 전국의 20세 이상 1,000명의 성인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분석한 ‘한국인의 죽음수용과 종교’(Yi, 2009)를 보면 종교인이 무교의 경우보다 더 젊을 때 죽음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개신교가 불교보다 더욱 죽음 수용적인 것으로, 또한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 더욱 수용적이 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대학생 950명을 대상으로 죽음관련 태도를 파악한 연구(Lee & Yang, 2007)에서는 대상자의 76.4%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무교에 비해 죽음 생각의 차이를 보임으로서, 실제로 종교가 공통적인 본질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는 종교가 죽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사회의 문화적 경향은 종교적 혹은 철학적 관점의 삶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Yoo, 2008).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웰다잉 교육을 특정 종교에 따른 교조적 차원이 아닌 종교에 대한 학문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형IV는 극락이나 천국은 저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고 믿는 현세주의자들이면서, 웰다잉에 대하여 해보고 싶은 것 다 해 보고 죽음에 따른 준비를 해놓고 죽기를 원한다. 더불어 타 유형들과 달리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

고 호스피스 전문가의 간호와 관리되는 장소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현세지향적 관점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단명론의 입장을 가진 서구의 합리주의적 입장에서 죽음문제를 이해하는 견해로서, 죽음을 현실세계로부터 단절로 파악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한국인에게서의 이러한 현세지향적 죽음관은 일찍이 동양적인 원초적 관념인 소생과 재생, 이와 관련된 지속 순환론적 관념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이후 유교의 귀신관념으로 변화하면서 소멸론이 확산되었으며 가족 중심적 관념이 그 확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Lee et al., 2005).

한편,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는 41.5% 정도로 낮고, 참여 의사 또한 부정적인 답변이 과반수 정도로 나타나 대학생 집단의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Jung et al., 2010).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효과를 본 김은희와 이은주(2009)의 연구에서는 5주 동안 매주 1회 150분 교육으로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주 1회 4시간씩 죽음준비교육 참여군과 비 참여군의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연구(Kang, 2010)에서는 참여군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비 참여군 보다 긍정적이었으며, 삶의 의미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의 효과와 아울러 죽음준비교육에 삶의 의미발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우선 죽음을 포함한 세계관의 동서양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유형 I 과 유형 II 는 동양적인 세계관을 수용하는 측면이 강하고 유형 III 과 유형 IV 는 서양적인 세계관에 대체로 긍정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두 큰 부류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유형 I 은 동양적인 세계관과 죽음관에 있어서 민속적 샤머니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유형 II 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근본으로 하는 도교적인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적이지는 않다. 한편, 서양의 합리적 분석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유형 III 과 유형 IV 에서도 유형 III 이 종교적이고 이타적인 죽음준비에 치중하는 경향을 가진 반면, 유형 IV 는 개인주의적 단명론적 입장에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네 유형 모두가 ‘억울한 죽음을 위한 곳’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죽을 복을 타고나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긍정을 보이는 반면, 자손과 관련한 문항들에는 유형 I 을 제외하면 그다지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인의 원초적 죽음관념으로 주목되는 본원적 환원과 지속 순환론적 관념이나 조상 숭배의 관념들(Lee et al., 2005) 또한, 고착되거나 정형

화되지 않고 외래 종교의 유입과 서구 문화와의 접촉으로 시시각각 희석되고 다양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이 죽음에 대한 전통 문화적인 방법이 오늘날의 웰다잉에 그대로 대입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그들 상호간의 조합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구성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한편 ‘죽음이나 웰다잉에 관해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에는 모든 유형에서 부정적인 답을 함으로서 죽음에 관해 평소에 여러 가지 경로로 체험이 있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으나 존엄사 방식이라든지 호스피스 전문가의 관리와 장소에 관한 요구에서는 한 유형을 제외하고 부정적이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죽음 관련 태도가 부정적이고, 불쾌한 반응이며 건강관련 전공자에 비해 비전공자가 더 부정적인 사실(Lee & Yang, 2007)과 호스피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도가 낮고 호스피스를 이용 할 의사 또한 과반수 정도가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Jung et al., 2010)과도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죽음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줄이고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봄으로써 죽음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게 되고 삶에 더욱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죽음교육이 더욱 긴요해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웰다잉에 관한 대학생의 주관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그들의 관점에 따른 개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계획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여기에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인 진지한 성찰과 의과학적 기초위에 자살이나 인락사 등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등 우리사회의 보다 성숙한 죽음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논의들이 대학 교육현장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죽음학’ 혹은 ‘웰다잉’에 대한 논의들도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커리큘럼에 반영하도록 하여 삶의 본질에 접근하게 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 혹은 해법을 찾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참여자의 분포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지역과 전공, 건강과 불건강을 망라하였다고는 하나 자살시도자나 호스피스 대상자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내재화하고 있는 웰다잉 개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Q 방법론을 통해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확인,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을 위한 웰다잉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이 나타난 웰다잉에 관한 인식과 태도는 4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I은 동양적인 세계관과 가족중심적인 내세관을 가진 사람들로서 천수를 다한 뒤 편안하게 죽기를 소망하며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죽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유형 II는 죽음을 타고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운명수용적 성향의 사람들이며, 가족적 개념이나 죽음준비 등에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 유형 III은 동양적인 세계관에 동조하지 않으며, 웰다잉에 대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기를 바라고 봉사하는 삶을 중시하는 이타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다. 유형 IV는 내세보다는 현세를 중시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죽음에 따른 준비를 해 나가고자하는 대상자의 집단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을 위한 죽음교육을 계획함에 있어 생명존엄을 위한 가치관 함양의 통전적 가치위에서 각 유형별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유형 I에게는 가족중심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의 죽음인식과 죽음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 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는 커리큘럼이 필요할 것이다. 유형 II에게는 생의 주기로서의 보편적인 죽음과 개인의 삶의 완성으로서의 죽음과 관련한 철학적,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며 자살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도록 죽음과 관련한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교육 방안이 요구된다. 유형 III에게는 죽음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문화와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삶의 과정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이고 경험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유형 IV에게는 우리사회의 죽음에 대한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죽음을 생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철학과 종교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죽음준비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웰다잉에 관한 인식과 태도 유형은 대학생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의 패러다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죽음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질수록 죽음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삶을 진지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죽음준비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상간호현장에서 대상자인 대학생들을 개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유형별 죽음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며, 나아가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생명존엄을 위한 가치관 함양이 기초가 되는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대학생을 위한 죽음교육커리큘럼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References

- Bark, H. M. (2007). The trends and patterns on suicide in Korea.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Project, 1*, 13-188.
- Becker, C. (2004). Death education and religion in schools and modern societ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9*, 3-22.
- Brown, S.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Choi, M. K., & Seo, J. M. (2011). Attitudes of adolescents toward suicide: Q-methodology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 539-549.
- Debate of the Age Health and Care Study Group. (1999). *The future of health and care of older people: The best is yet to come*. London: Age Concern.
- Ha, J. H., & An, S. H. (2008). The verification of a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suicidal ideation to stress, coping styles, perfectionism, depression, and impulsiv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 1149-1171.
- Han, N. Y., Yoon, H. J., Park, E. W., Cheong, Y. S., & Yoo, S. M. (2002). Perception of a good death in the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3*, 769-777.
- Jang, H. Y., & Kang, S. G. (2000). A study of traditional ceremonies and a view of death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0*, 265-283.
- Jo, K. H. (2010). The meaning of dignified dying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 72-82.
- Jung, H. O., Chung, K. T., Hwang, W. D., Kim, Y. S., An, J. H., & Kim, D. H., et al. (2010).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orientation and attitudes on hospice -To develop homo humanitas thanatology-.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22*, 153-168.
- Kang, K. A. (2010). Comparison of meaning in life and death attitude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well-dy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10*, 156-162.
- Kim, D. H. (2010). Death education through Korean language texts.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Education, 46*, 1-30.
- Kim, I. W. (1994). *A study on the cultural foundation of Korean education*. Seoul: Moon-umsa.
- Kim, J. H., & Min, K. H. (2005). The influence of gender and personality on fear of death and death acceptance among young adul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4*(2), 11-36.
- Kim, M. A., & Kim, S. W. (2003). Subjectivity toward death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9*, 7-16.
- Kim, M. H., Kwon, K. J., & Lim, Y. O. (2004). Study on 'good death' that Korean aged people recogniz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 195-213.
- Kim, S. E. (2007). *Q method & sociology*. Busan: Goldwell Publishing Inc.
- Kim, S. M., Lee, Y. J., & Kim, S. Y. (2003). Attributes considered important for a good death among elderly and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3*(3), 95-110.
- Lee, J. K., & Choi, M. E. (201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uicide coverage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n college student's intention for suicide: With a focus on suicide coverage of public figures and college students, stress, impulsivity, self-esteem,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s.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2*(4), 147-187.
- Lee, O. J., & Yang, N. Y. (2007). A study on the death-related attitude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 389-397.
- Lee, S. M., Kang, D. K., Son, S. K., Kim, S. C., & Lee, E. S. (2005). *The view of death of Korean and bioethics.*, Busan: Sejong Press.
- Moon, S. Y. (2009). A study on bio-ethics in university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0*(2), 13-24.
- Oh, C. T., & Kim, C. G. (2009).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attitude toward death and depression in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1), 51-69.
- Pan, S. H. (2007). Suicide in the Korean young adulthood: Special features and dialectical behavioral treatment's intervention.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13*, 235-258.
- Park, J. E. (2009).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the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of the elderly.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8*, 79-109.
- Statistics Korea. (2010). 2009 *Death origin statistics*. Retrieved September 9, 2010,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bmode=read&bSeq=&aSeq=17950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Steinhauser, K. E., Clipp, E. C., McNeilly, M., Christakis, N. A., McIntyre, L. M., & Tulsky, J. A. (2000). In search of a good death: Observations of patients, families, and provider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2*, 825-832.
- Hankookilbo. (2010, March). *Needs for beautiful death*. Retrieved March 22, 2010, from Hankookilbo <http://www.Hankooki.com>
- Yi, G. H. (2009). Death acceptance and religion in the case of Koreans. *Survey Research 10*(3), 131-156.
- Yoo, K. J. (2008). Conditions and direction of well-dying from the viewpoint standing on the contemporary cultural context of Koreans. *The Society of Eastern Philosophy, 55*, 7-43.

A Study on the Cognition and Attitude on Well-Dying in Undergraduate Students*

-Q methodological approach-

Shim, Hyung Wha¹⁾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Pusan-Catholic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ubjectiv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about well-dying. **Method:** Q-methodology, which is effective in scientifically measuring individual subjectivity, was used. The result of the Q-sort of the 34 Q-statements by 42 participants was analyzed using the PQM program. **Result:** Four cognitive types of subjectivity about well-dying were identified and labeled as follows. Type 1: oriental and family-centered type, Type 2: Individual and fate-adapted type, Type 3: altruistic and afterlife-centered type, Type 4: self-leading and secularistic type. **Conclusions:** Undergraduate students have a well-dying concept which tends to be self-centered and secularistic. At the same times, they also have a well-dying concept which has a basically oriental view, that is, family-centered and fate-adapted views.

Key words : Undergraduate, Cognition, Attitude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Nursing Science Institute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in 2011.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him, Hyung-Wha

Department of Nursing, Pusan-Catholic University

4-1 Bugok 3 Dong, Pusan City, 609-323, Korea

Tel: 82-51-510-0725 Fax: 82-51-510-0747 E-mail: hwshim@cup.ac.kr